11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밝고 고운 봄 햇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채워 갑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생명의 물결이 111년 된 교회와 앞으로 맞이할 청파의 미래 가운데 푸르게 번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의 삶이 미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이들을 통해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 주께서 가리켜 보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요일 1:7 …… 인도자

▲ 교 독 문 …… 23. 시 43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다 함께

▲ 성경봉독 …… 벧전 1:1~2 …… I. 인도자
II. 정재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우리 함께 가리라 …… I. 마중물 찬양대
II. 빛 II. 청파찬양대

말 씀	**나그네로 산다는 것**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새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불안한 인생에 주인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다 함 께: **아멘. 주님, 내게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몫을 힘차게 살아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설립기념 음악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바실레이아)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었고, 성경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클레시아)를 통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증거되고 성취될 것인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천 년간의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속한 특정한 교단과 교파의 전통을 따라 형성된 협소한 교회관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종교집단을 뜻하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흔히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민회(民會)로 모인 시민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거나,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인 군대를 역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지요. 에클레시아란 '어떤 목적을 위해 불러서 모인 집단'을 일컫는 일반 명사였어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점에서 모일 이유가 분명했고, 그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만 성립되는 한시적 공동체를 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빗대어 '기독교 회당(시나고구)'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도 특기할 만하지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제도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집, 회당, 광장, 심지어는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에서도 에클레시아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박해로 깨어진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박해가 끝나고 다시 모여 자신들이 퍼져 들어간 곳에서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어렵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왕성한 확장은 에클레시아 자체의 단순성, 즉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부합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시도 가능한 민첩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론은 특정한 이미지에 너무 깊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뾰족탑, 강대상, 장의자, 파이프오르간 같은 물질적 근거에 깊이 의존하거나, 개신교 특유의 어떤 사회적 인간형, 관계맺는 방식, 목회자의 말투, 기도하는 방법 등의 '교회 문화'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를 설명해주는 일부임에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에클레시아의 핵심이거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언제나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표현일 때에만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인 바실레이아를 지상적으로 대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는 언제든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갱신해갈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바실레이아의 가치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훼방하는 모든 것은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언제나 드려야 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실레이아가 이 땅의 에클레시아에 임하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만큼 간절한 것이며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바실레이아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일상에 바실레이아는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양희송, 「세속성자」(북인더갭) 중에서

청파교회 설립 기념 111주년 기념 음악회

• 시작 - 오후 1:30 • 장소 - 대예배실

찬양과 율동	--고등어 두 마리와 찹쌀떡 다섯 개--	나오미 1,2여선교회
합창	-------- 선한 능력으로 --------	2여선교회
바이올린 연주	-------- 주만 바라볼지라 --------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왕준 부녀
코믹댄스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5여선교회
밴드	------- 걱정 많아요 그대 -------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3남선교회
듀엣	---------- 가을아침 ----------	홍은비 자매
예술단	---------- 반갑습니다 --------- 내 주를 사랑합니다	3여선교회
합창	------- 바람이 불어오는 곳 ------	2남선교회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곽새롬 국지연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명숙
김미숙 김선희 김성순 김성우 박유경 김수진b김연정 김영락 김영읍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종락 박영신
김종성b서이순 김태성 김필순 김호식 최원영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신후
문홍일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숙영 박준희 이기분 박해숙 방문성 박혜경a
방 민 방 준 배강우 배삼순 서수진 소광섭 김숙희 손규현 오보영 송병찬
송정근 이소선 신능수 신문희 안길상 이형숙 오미숙 오민용 오유경 김현동
오자영 오재형 임고운 왕수명 우순덕 유중희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미정
이미휘 이범석 류정욱 이시경 이영미 이용석 이우엘 이재우 배이화 이정우
장윤지 이정은a이종후 이준림 이한나 이현주 임당재 임선자 임승동 백혜숙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장현희 정영우 김지윤 정택중 조관행 홍선희 조수아
주은경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윤화 최종원 최철수 곽권희 최형민 최희영
추헌영 한봉섭 한선희 한완식 임정자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소형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반야 김연진 주혜연 김나래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영 김재환
김준환 김미정 김현미 김호연 박재영 안지민 안현호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태석 임종수 임진엽 전근우 전희수 채일석 최미선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형순

녹색꿈헌금

김주현 김용길 최영혜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교회설립기념주일** : 오늘은 청파교회 설립 1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 기념음악회가 열립니다.
2. **구역인사위원회** :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오후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예배 생활 안내** :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조용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실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도록 합니다.
   예배실 안으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은 가능)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설정하거나 꺼둡니다.
   예배실 안에서는 예배 전후라도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정숙합니다.
4. **신앙실천** : 기쁨을 나누는 자리,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잠 23:22-25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하현철	김승현	이재훈

5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정민 문홍일 김광일 이혜령 고숙이 김경혜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송형운		

오늘 식당 봉사	김성순 윤영미 배이화 김애순 임혜진 이재우 서동우 장동훈		
다음주식당봉사	정현숙 백성래 임영선 서이순 이완구 김경희 김종성 김광일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35-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